공안부 : 해외에 억류된 공민 전력으로 구조할 것

최근 우리 나라 공민이 유인되여 경외로 나간 후 련락이 두절되거나 억류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 인원의 가족이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구조 정보를 발표하고 있다. 공안부는 이에 대해 고도로 중시하고 있는바 우리 나라 공민이 경외에서 련락이 두절되고 억류된 정황을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정찰조사작업을 전력으로 전개하도록 각지 공안기관에 즉시 배치하는 동시에 외교부문과 우리 나라 해외 주재 대사관, 령사관의 지지와 협조하에 억류된 인원을 전력으로 조정 및 구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안기관은 경외 사기집단은 '고액 급여 일자리, 숙식 제공, 항공권 정산, 전담인력 마중'을 미끼로 삼거나 비지니스고찰, 무료려행 등 명목으로 경내 인원을 경외로 유인하여 전신인터넷사기 등 불법범죄활동에 종사하게 한다고 귀띔하였다. 광범한 군중들은 반드시 경계를 늦추지 말고 자신의 안전 예방을 강화하며 해외 고임금 채용 정보를 쉽게 믿지 말고 사기 및 전신사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가족이 경외에서 련락이 두절되고 억류되는 등 정황이 발생하면 즉시 소속지 공안기관에 신고하는 동시에 우리 나라 해외 대사관, 령사관 등 공식 경로를 통해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즉시 정찰조사작업을 전개하고 관련 부문과 조률하여 련락이 두절되였거나 억류된 인원을 찾고 구조할 것이다.

공안기관은 다국적 전신인터넷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며 특히 만마 묘와디 등 새로운 사기 소굴이 모여있는 지역에 대해 국제 집법 협력 강도를 가일층 높이고 관련 국가의 경찰측과 련합해 타격행동을 전개하여 경외 전신사기 소굴을 전력으로 파괴하고 억류된 사람들을 전력으로 조정 및 구조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생명재산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착실히 수호할 것이다. / 인민넷 – 조문판

장춘공항세관

려객의 짐 속에서 16.7 만딸라 현금 색출

1 월 8 일, 장춘룡가국제공항세관은 출국항공편의 수하물에 대한 감독관리 과정에 한 승객이 현금이 가득찬 양말을 외투 안쪽에 꿰매고 불법으로 딸라를 소지한 것을 적발했다. 현장 세관 직원의 확인 결과 총 16.7 만딸라, 인민페로 환산하면 120.4 만원에 달했다. 이 사건은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처리 진행중에 있다.

관련 법률법규에 따르면 화페현금은 출입국 제한 물품에 속한다. 출입국 려행객이 휴대 가능한 외화 현찰이 5,000 딸라를 초과하면 사실대로 세관에 신고하고 '신고 통로'를 선택한 후 통관해야 한다. 세관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화페를 한도를 초과하여 휴대하고 출국할 때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가 사실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에 의거하여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도시석간

리혼후 부동산은 누구의 소유일가?

최신 사법해석

현실에서 남녀 량측은 결혼전이나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일방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일방에 주거나 다른 일방의 '명의 추가'를 약속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하다. 그러나 리혼할 때 부동산 분할은 종종 량측의 분쟁 초점으로 된다.

사법해석에서는 리혼할 때의 재산 분할에 대해 아직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이미 이전등록을 마친 경우 2 가지 상황을 구분하여 각각 규정했다.

■ 아직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법해석에 따르면 부부간에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정한 경우 리혼소송 시 량측이 주택의 귀속 또는 분할에 대해 분쟁이 있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인민법원은 결혼과 가정의 실제 상황에 따라 주택을 일방이 소유하도록 판결하고 주택을 취득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보상할지 여부와 구체적인 부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즉 증여하는 일방이 마음대로 이 약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이미 이전등록을 한 경우

사법해석에 따르면 혼인관계의 존속기간이 짧고 증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은 증여자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하고 혼인가정의 실제 상황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보상할지 여부와 구체적인 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법관은 판결할 때 인민법원은 각측의 리익을 균형있게 조정하여 가정을 위해 헌신한 일방이 정신적 손실과 재산손해를 동시에 보게 해서는 안되며 혼인이 부당한 리익을 얻는 경로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인민넷 – 조문판

시례로 법 말하기 -19

미성년자를 교사하여 '나쁜 일을 하게 한' 경우 책임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사례

어느 날 점심, 7 살 나는 소명은 한창 동네에서 또래 친구들과 놀고 있었다. 이때 여기를 지나가던 장삼은 자기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은 리사의 차가 한쪽에 세워져있는 것을 보고 악의가 생겨 리사의 차를 가리키며 아이들에게 "먼곳에서 공을 차서 이 차의 후시경을 맞히는 사람에게 10 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소명은 단번에 자동차 좌측 후시경을 명중하여 후시경 축이 부러지고 렌즈가 부서졌다. 그후 리사는 소명의 부모에게 후시경 교체비 1,500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소명의 부모는 교사자인 장삼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삼은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법률해석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민법전 제 1169 조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을 교사, 방조하여 권익침해 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는 행위자와 련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민사행위무능력자, 민사행위제한능력자를 교사, 방조하여 권익침해 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는 권익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 민사행위무능력자, 민사행위제한능력자의 후견인이 후견 직책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인민넷 – 조문판

'I0086'?! 이런 새로운 속임수 경계해야

최근, 한 배우의 유괴사건이 주목을 받으면서 사기 예방에 경종을 울렸다. 료해에 따르면 년말일수록 사기군들은 년말의 '수확'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군중들의 외출, 쇼핑, 교제 등 다양한 기회를 리용해 속임수를 꾸미고 있는데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낡은 병에 새 술을 담는' 인터넷사기 빈발

설 련휴가 다가오면서 사기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료해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사기는 '낡은 병에 새 술을 담는' 격으로 사기를 부단히 승격시키고 있다.

—항공권 '환불 및 변경' + '화면 공유'

최근, 라선생은 항공편이 취소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항공편 변경 및 지연 배상금을 지불할 것이니 관련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고 안내에 따라 조작하라고 요구했다. 이 새로운 '환불 및 변경' 사기는 당사자에게 '클라우드 써비스 App (云服务 App)'를 다운받게 하고 화면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며 그 틈을 타서 은행 App 와 결제 코드를 알아내는 것이다. 이 한번의 조작으로 라선생의 은행카드에서 3 만여원이 이체됐다. 료해에 따르면 '화면 공유'는 새로운 사기수법이다. 일단 이 기능을 켜면 은행카드번호, 비밀번호, 문자메시지 검증코드 등 내용을 상대편이 직접 볼 수 있다.

—정부 App 사칭 + '양털 뽑기'

일전, 북경 시민 서선생은 친구가 보낸 큐알코드를 통해 이른바 '위생건강위원회'라는 App 를 다운받았다. App 에는 정부 사업일군의 위챗도 제공되여있었다. 서선생은 제시에 따라 '위생건강위원회 령도'의 위챗을 추가하고 '보조금 위챗단체방'에도 가입했다. 단체방에서는 '혈당계 보조금' 등 보조금 대상들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보조금을 날마다 몇원씩 받을 수 있었다. 1 개월 사이에 이 단체방에 400 명이 가입했다. 수십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후 단체방에서는 '초장기 특별국채'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최소 3,000 원을 투자하면 하루 리식이 45 원이고 최대 5 만원을 투자하면 하루 리식이 1,550 원에 달한다는 것이였다. 북경 통주의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App 는 주소가 경외에 있는 사기 App 이고 사건 련루 금액은 약 50 만원에 달했다.

—음성 불법 수집 + 친구 돈 빌리기

최근년간 위챗에서 지인들이 '돈을 빌려달라'는 것에 대중들은 점점 더 신중하고 있다. 하지만 사기군들은 타인의 음성 정보를 도용하여 사기를 치기에 대중들의 식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북경 경찰이 공개한 사건에 따르면 손녀사는 한 인터넷게임에 빠졌는데 사기군들은 '게임 쿠폰을 충전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그녀와 음성 채팅을 했고 위챗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동안 음성 채팅을 하면서 사기군들은 일부러 손녀사에게 "나야, 나!"라는 음성 응답을 유도했다. 얼마 뒤 손녀사의 위챗 친구들은 '손녀사'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소식을 련이어 받았고 4 명의 친구가 '나야, 나!'라는 음성 답변을 듣고 아무런 의심 없이 계좌이체를 했다.

—위장문자 + '안전제어'

년말에 많은 상호들이 '포인트 제로' 행사를 시작하는데 사기군들도 이 '계기'를 노리고 있다. 양모는 '포인트로 에어프라이어 (空气炸锅) 를 교환'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문자에 언급된 사이트 주소와 원 사이트 주소가 비슷해서 별 의심없이 '장상영업청 (掌上营业厅)'에 접속했고 요구에 따라 성명, 신분증번호,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내용들을 기입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사기군들이 당사자를 '전국은련 신용카드 인출 전용' 페지로 유도하여 소프트웨어 안전제어를 다운한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프로그람은 실제로 트로이목마 프로그람이다. 얼마후 양모는 자신의 신용카드에서 근 8,000 원이 인출된 것을 발견했다.

특정 신분으로 사칭한 사기

—세입자로 사칭

최근, 사기군이 인터넷 플래트홈을 통해 사모를 찾아 주택을 장기간 임대하려고 했다. 쌍방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500 원, 예약금 1,000 원, 매달 임대료 5,500 원을 합의했다. 사기군은 모 과학기술회사의 프로그래머로 사칭했고 대화에서 사모를 아주 잘 맞추어주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기군은 금융투자 등 화제를 토론하면서 AI 계산법으로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믿었던 사모는 주동적으로 상대방이 추천한 사이트에 아이디를 신청하고 륙속 60 만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사이트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등록이 안되자 사기당했음을 인식했다.

—방문수리를 리유로 VOIP 장비 불법 설치

최근, 일부 불법분자들은 련통이나 이동 또는 가화유선 (歌华有线) 의 사업일군으로 위장하여 방문수리나 인터넷 속도 개선 써비스를 제공한다면서 실제로는 VOIP 장비를 설치하는 불법행위들을 하고 있다. 이 설비는 해외 사기전화를 국내 유선전화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이 더 쉽게 믿도록 한다. 2024 년 북경 조양구 경찰이 적발한 사건에서 용의자는 인터넷에서 설비 설치 회사에 채용되였다. 이 사기 회사의 '사장'이 용의자에게 련락을 취해 가짜 광대역회사 고객쎈터의 사업증 (工牌) 과 VOIP 장비를 택배로 배달하였으며 설치 장소를 알렸다. 한달 동안에 용의자는 총 수십대의 설비를 설치하여 근 1 만원의 리익을 챙겼다.

—택배원으로 사칭해 '주문조작 (刷单)' 사기 실시

최근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사기군들은 금괴 거래나 현금 수송 등 새로운 수법으로 불법 소득을 빼돌리고 있다. 류녀사가 바로 이런 사기극에 걸려들었다. 어느 날, 가짜 '순풍 택배원'이 류녀사를 친구로 추가하고 위챗단체방에 초대했다. 단체방에는 류녀사가 스스로 고를 수 있는 선물 사진들이 있었다. 류녀사가 선물을 선택하자 상대방은 인차 선물을 보내왔고 선물을 받자 류녀사에게 주문 전용 App 를 다운받을 것을 요구했다. App 고객쎈터는 류녀사에게 토보상가를 찾아 '좋아요', '주목'을 눌러주는 등 간단한 임무를 수행하게 했고 완성 후 위챗 홍보로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류녀사가 수익금 인출을 신청하니 상대방은 '구조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리유로 인터넷 예약 차량을 타고 8 만 8,000 원의 현금을 지정된 장소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다행히 류녀사의 행위는 경찰측에 의해 신속히 발견되여 제때에 저지되면서 큰 손실을 피면했다.

경각심 강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료해에 따르면 2024 년 북경시공안국 형사범죄수사총대는 고손실 전신사기 및 신형 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년간 전신사기의 사건 해명, 구속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9%, 36.8% 증가했다. 사기 관련 흑색, 회색 산업사슬에 대한 단속을 주요 단속 방향으로 여러 부문의 종합련동 단속 관리기제를 혁신적으로 구축했다. 80 여개의 현금 인출 범죄집단을 제거하고 500 여명의 범죄용의자를 체포했으며 사기 관련 오프라인 거액 거래를 점차 제로화했다. 2024 년, 루계로 7 억 4,000 만원의 피해자금을 반환하였다.

경찰들은 대중들이 항상 경각성을 높이고 여러 신형 사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낯선 친구 추가와 낯선 문자 링크에 대한 예방, 선별을 강화하고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례를 들면 사기군들은 운영회사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모조하는데 군중들이 영어자모 'I'와 수자 '1'이 비슷하여 가끔씩 헷갈려하는 것을 리용하여 'I0086'을 '10086'으로 사칭한다.

다음,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낯선 App 를 다운받지 말아야 한다. 최근, 여러 지역의 소비자협회는 명절을 앞두고 출처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람에 악성 소프트웨어가 포함될 수 있고 일단 설치되면 은행카드의 비밀번호, 인증코드 등 개인 정보가 류출될 수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플래트홈에 성명, 신분증번호, 은행카드번호, 비밀 번호 등을 기입하지 말고 특히 금융에 관한 정보에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기 방지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응답자들은 모바일 은행 App 의 '야간 잠금'과 결제앱의 '야간 보호' 기능을 통해 은행카드의 도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 신화사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한국인 유부남에게 속아 출산한 중국인 녀성, 법적 권리 되찾아

2024 년 7 월, 한국 대전가정법원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일반인 한국 유부남 리모모의 생물학적 아이의 중국인 모친 리모가 리모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사건이였다.

유부남인 한국인에게 속아 임신과 출산을 겪은 중국인 녀성의 법적 권리 청구 사례가 법적 판결을 통해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한국 법무법인 재유는 해당 녀성의 소송대리인으로 법정 변호에 나서 이 사건의 승소를 이끌어 냈다.

한국 유부남과 중국인 녀성 혼외자 사건의 전말과 판결

섬서성 출신의 리모 녀성은 2015 년 섬서성에 진출한 모 한국회사에서 근무중이던 한국인 남성 리모모를 만나 교제했고 거의 매일 함께 생활했다. 리모는 리모모가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해외 출장을 할 경우에도 같이 다녔다.

교제한 지 3 개월 만에 임신을 한 리모는 락태수술을 받았다. 2 년여 동안 교제할 무렵, 리모가 재차 임신을 하게 되자 리모모는 결혼식을 올리라는 리모 부모의 의사와 리모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태도 표시를 했고 2018 년 7 월경에 두 사람의 아이가 태여났다. 그후 해당 병원에 리모의 중국 신분증과 리모모의 한국 려권을 제출하여 아이의 출생의학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듬해 3 월경, 세번째로 임신한 것을 발견한 리모는 아이가 출생한 지 몇개월 밖에 되지 않은지라 다시 락태하기로 결정했다. 그후로 리모모는 바쁘다는 핑게로 무관심하기 시작하더니 한국에 귀국한 후에는 아예 련락조차 하지 않았다. 2020 년 6 월경, 리모는 계속 련락하고 있던 리모모의 '녀동생'에게 처음으로 카카오톡으로 련락했는데 이른바 '녀동생'이라는 녀인이 리모모와 결혼신고를 마친 배우자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였다.

2023 년 10 월, 리모는 리모모에게 속아 피해를 입는 녀성이 더 나타날가 우려되여 그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제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이의 친부로서 리모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 리행을 독촉하고저 소송을 결심하게 되였고 법무법인 재유에 소송대리를 위탁했다.

소송 과정에서 리모모가 소장을 회피하고 송달지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법무법인 재유는 리모모가 자녀의 친부임을 증명하기 위해 중국 출생의학증명서, 가족사진, 리모와 아이의 생물학적 부친인 리모모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2024 년 6 월, 한국 대전가정법원은 리모모가 아이의 친부임을 인정하고 과거 양육비 2,000 만원 (한화) 지급과 함께 향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기적인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결했다.

양육비 부담의 법적 근거

부모의 양육 책임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법무법인 재유측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 판례 (1994.5.13. 자 92 스 21 전원합의체 결정) 는 과거 양육비 역시 분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판결을 통해 아이는 앞으로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마련받게 되였으며 남성은 아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외면할 수 없게 되였다.

이번 사건은 부모의 책임이 단순한 도의적 수준이 아닌, 법적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었다. 또한 한국 남성과 외국 녀성 사이에서, 즉 국제적 관계에서 태여난 아이들에게도 공정한 법적 권리가 보장되여야 함을 강조한다. 법무법인 재유의 조력으로 리모 녀성과 그의 자녀는 법적 권리를 되찾았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들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전했다.

/ 유경봉기자

련계전화 : 13604447151